

고교학점제 안착, 학교 현장 다각적 지원

전북교육청, 사교육 컨설팅 증가·출결 처리 업무 과중 등 5대 현안 대응 방안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체계 강화 및 교사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사교육 컨설팅 증가 △출결 처리 업무 과중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부담 △공강 시간 운영의 어려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과다 등 5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교육 컨설팅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상담을 운영하고, '진로학업 설계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교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미 학생용 진로·학업 설계서는 학교에 배포했다.

출결처리 업무 과중 문제는 교과교사와 담임교사가 출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1·2차 기능 개선을 완료했고, 교시별 과목 정보 확인, 비고 입력 기능 강화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해서는 미이수(예정) 학생에 대한 예방·보충 지도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EBS 콘텐츠 활용, 개별 과제 제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교사를 위한 연수와 자료 제공도 병행한다.

공강 시간 운영 지원을 위한 '학점 제형 학교 공간 조성 사업'도 지원한다. 도내 113개교에 자율 학습 및 진로 설계 공간을 마련, 자기주도학습과

진로 탐색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안내했다.

끝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설명회를 통해 주요 내용을 전달, 향후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컨설팅과 교원 역량 강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미국 조지아대학교를 방문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교수·학생 교환 프로그램 활성화 및 공동 연구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대, 미국 방문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양오봉 총장, 조지아대 방문 교수·학생 교류 등 협력 논의

애틀란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석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를 방문해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산학협력 강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 총장은 애틀란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석, 협력의 폭을 넓혔다.

이를 통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정보를 교류했으며,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장했다.

특히 미국의 명문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를 방문해 미래모빌리티, 푸드테크, 사회복지학 분야에

서 양 대학 간 교수·학생 교환 프로그램 활성화 및 공동 연구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와 LA 한인상공회의소와의 현장 미팅에서는 지역 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산학협력 강화의 기반을 다졌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미국 방문은 전북대학교가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5년 찾아가는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찾아가는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를 갖고 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통합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및 유치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일 순창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12일 정읍, 17일 무주, 21일 진안, 24일에는 임실에서 진행됐다.

이어 29일에는 완주, 5월 13일 남원·장수, 20일 김제, 22일 부안, 23일 고창 등 5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설명회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2025년 전북 유보통합 핵심 정책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현황 △영유아학교 개발기관 운영 △영유아학교 특색사업 운영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치원 3개원, 어린이집 3개원 등 총 6개원을 대상으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사업(어린이집 3개원)도 추진한다.

특히 도내 모든 유아가 보편적 교육과 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점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특색사업으로는 △정서·사회·심리 발달 지원 강화 △영유아 이음교육 확대 △유·보·초 교사 역량 강화 △영유아 교육·보육 책무성 강화 등 4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전주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오는 5월 1일까지 '2025년 전주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수행할 5년 미만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주형 창업패키지'는 전주시 지역 특화산업 분야에서 유망 기술 및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도약발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 총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의 전주시 소재 기업 또는 협약기간 내 전주시로 본점 이전이 가능한 초기창업기업이다. 접수는 이메일(startupji@naver.com) 및 전용 온라인 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5월부터 약 8개월간 시제품 제작, 인력 고용,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의 사업화 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국내·외 판로 개척, 소재 인증·분석, 연합 투자유치 R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김상진 창업지원단장은 "도내 혁신적인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전주형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돌레랑스형 융합인재’ 양성에 대학들 힘 합쳐

전북대, 성균관대·이화여대·강원대 등과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 추진 협약

‘한국사회 대전환 K.O.R.E.A.+X 컨소시엄’ 구성… 미래사회 갈등 해결 핵심 역할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가 미래사회의 갈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추진을 위해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계명대학교 등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들 5개 대학은 HUSS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사회 대전환 K.O.R.E.A.+X 컨소시엄'을 구성, 미래 사회 갈등 해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돌레랑스형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대학과 전공,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교육 체계를 통해 미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매년 3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컨소시엄은 전북대 주관으로 5개 대학이 공동으로 단기·집중이수형 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의 전공과 무관하게 교과목 선택권 확대 및 진로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학사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대학 내에서는 학과 및 단과대학 간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해 교원들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대교협 회장)은 "이번 컨소시엄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참여 대학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갈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간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대학 내에서는 학과 및 단과대학 간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해 교원들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대교협 회장)은 "이번 컨소시엄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참여 대학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갈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점검표 체크해서 공문으로 결제하는 것이 ESG 실천?”

전교조 전북지부, 도교육청 ESG 교육·실천의지에 의존 제기

“학교 구성원들의 성찰 통한 실천 방안 스스로 만들어야” 주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ESG 교육과 실천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점검표를 체크해서 공문으로 결제하는 것이 ESG 실천이냐”며 “학교 구성원들의 성찰을 통한 실천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북교육청이 발송한 '1화용품 사용 실태 및 에너지 절감 이행 점검표 활용 방안'이

라는 공문에 '활용'이라는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는, 각급 학교에 강제하는 내용의 지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점검표를 체크하고 그 결과를 스캔해 내부 계획서 공문에 첨부할 것, 분기당 회의나 행사 개최 건수와 점검표 활용 건수를 자료집계로 보고하라는 것이 공문의 내용이라는 것.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에서 연간 열리는 회의와 행사는 셀 수가 없다. 어느 초등학교 2024학년도 공문 기록을 찾아보았는데 내부결재한 회의만 63건에 달했다”며 “각종 회의와 행사까지 포함하면 100건은 족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한 “너무 많은 회의 때문에 회의 적이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교사들은 수업 후 회의 참석하는 것도 버겁다”며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하겠다는 말은 다 거짓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남원 춘향제서 원푸드 홍보부스 운영

전주대학교 K-Food산업연구소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95회 춘향제에서 남원 원푸드를 활용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 원푸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 중 하나인 백향과 캐러터 백향이를 활용해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원 원푸드 가공 상품 및 굿즈를 이용한 전시 홍보 부스와 게임

체험 및 요리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 백향과의 매력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농특산물 활용 가공 시제품 상품화 사업을 통해 개발된 백향과 버터와 백향과 시럽을 활용한 △원더파이(남원 백향과 크림 초코 샌드) △원더샌드(남원 백향과 크림 샌드위치) △남원 백향과 시럽 △남원 백향과 버터를 소비자에게 선보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동시에 지금까지 기술이전 받은 B2C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수인 교수(한식조리학과, K-Food산업연구소장)는 “춘향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남원 백향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농산물의 확장성과 미식 콘텐츠의 대중화를 위한 저변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학생들의 실습교육 강화를 위해 김현중 은누리무인항공 대표가 2,000만원 상당의 드론교육장 구축 및 제반시설을 기증했다.

우석대 군사학과, 드론 실습환경 대폭 강화

은누리무인항공, 2000만원 상당 드론교육장 구축·제반시설 기증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학생들의 실습교육 강화를 위해 김현중 은누리무인항공 대표가 2,000만원 상당의 드론교육장 구축 및 제반시설을 기증했다고 전했다.

24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김

현중 대표, 군사학과 교수진 및 학생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군사학과는 기존 실내에 설치된 드론교육장을 실외로 확장 구축하고, 실외 운용을 위한 전면 유리 개방형 컨테이너 2동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 선정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025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24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은 AI를 활용한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고차원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전북대학교, (주)기움인과 컨소시엄을 구성, 에듀테크를 활용한 R.I.S.E-test를 도입해 다양한 전략

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도서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춘 총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5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